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6월 3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11-16절

설교제목 : “놀라운 능력을 II”

13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고 합니다. 13절에서 ‘마술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르키스테스’는 ‘밖으로 나가도록 명하는 자’란 의미인데, 주로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며’라는 수식어로 볼 때 이들은 에베소 토박이 무당이 아니라, 여러 곳을 떠돌아 다니는 무당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한 신유의 기적을 보고, 바울의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귀신들을 축귀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당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특징을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서 내 보냅니다. 13절에서 ‘명하노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호르키조’입니다. ‘호르키조’란 단어는 ‘부탁하다’, ‘애원하다’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에게 단호히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귀신과의 타협이며 일종의 애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귀신을 축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는 ‘에피닷소’나 ‘파랑겔로’인데 모두 ‘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참고 막 1:25-27, 행16:16-18) 성경적인 축귀의 역사는 달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악귀를 쫓아내는 축귀의 역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악귀를 쫓아내는 축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마12:28) 또한 축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됩니다.(요14:14-16)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막 16:17)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고 합니다. ‘스게와’는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제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키에류스’는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헌 그 어디에도 대제사장 가운데에 ‘스게와’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게와’가 왜 대제사장으로 불리웠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게와’가 자신을 대제사장 가문에 속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게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곱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무당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 역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다루려고 하자,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반문합니다.(15절) 우리 한글성경으로는 모두 ‘알다’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다릅니다. 악귀가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에는 ‘기노스코’를 사용했고, 바울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에피스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노스코’는 ‘인정한다’, 또는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는 뜻입니다. 악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에피스카마이’는 ‘안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악귀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악귀가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는 악귀의 반문은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귀가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자들임을 알아보고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악귀들린 자는

스게와의 아들들을 조롱만 하지 않았습니다. 악귀들린 자는 갑자기 그들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16절) ‘뛰어올랐다’는 것은 마치 표범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덮치듯 뛰어오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눌러’로 번역된 ‘카타퀴리유사스’는 ‘주인이 되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지배하려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오히려 반대로 악귀들린 자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기다’로 번역된 ‘이스퀴오’는 ‘육체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귀들린 자가 스게와의 아들들을 육체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귀는 스게와의 아들들을 육체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상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다’는 뜻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스게와의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살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선포한 사람이 예수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악귀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악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 자신의 명성이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넓히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변화된 인격과, 영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변화된 인격은 강조하는데, 영적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일꾼은 반드시 변화된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영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넓히기 위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무당의 축귀와 성경적인 축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2) 성경에 의하면, 축귀의 역사가 보여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일꾼은 반드시 변화된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영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새생명축제와 부흥회를 놓고 다같이 연합해서 기도하십시오.
- 4)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